

구약 속 ‘동물윤리’에 관한 신학적 연구

이금재 (목원대학교 조교수)

I. 들어가는 말

II. ‘동물윤리’에 대한 기독교 신학과 구약의 관점

1. ‘동물윤리’에 대한 기독교 신학
2. ‘동물윤리’에 대한 구약학의 관점

III. 구약 본문 속 ‘동물윤리’

1. 두 창조 이야기 속 ‘동물윤리’
2. 제사장 문서에 속한 노아의 홍수 이야기 속 ‘동물윤리’
3. 오경 본문 속 ‘동물윤리’
4. 지혜 문학 속 ‘동물윤리’

I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3.56.11>

• ABSTRACT •

A Theological Study of ‘Animal Ethics’ in the Old Testament

Assistant Prof., Lee, Keung Jae (Mokwon University)

Christian theology has not only been indifferent to animal welfare and life but has also had to contend with the popular prejudice that it provides theological justification for the destruction of ecosystems and the ruthless exploitation of animals since the Industrial Revolution. With dozens of animal species becoming extinct every day and ecological space for wildlife being continually destroyed, we wanted to find out what the Old Testament had to say. The solution which we ignore is already there in many Old Testament texts.

The core of the ‘animal ethics’ proposed in this study is that God creates humans and animals to live and multiply. This fact is valid from the time of God’s creation until the end. The wisdom literature of the Old Testament tells us that the ‘righteous’ take care of all that animals need to sustain life. The Old Testament promises rest and flourishing without distinguishing between domesticated animals that benefit humans and wild animals that harm humans. And the Old Testament never views animals as tools for economic gain. Ultimately, &animal ethics& in the Old Testament begins with recognizing animals as God’s creatures and objects for which humans have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Key words: Animal Ethics, Old Testament, Creation Story, The Story of Noah’s Flood, Wild Animals, Domestic Animals, Wisdom Literature

I. 들어가는 말

‘조이불망(鈞而不網): 낚시는 하지만, 그물은 사용하지 않으며, 익불사숙(弋不射宿): 자는 새는 쏘지 않는다. - 논어 숙어편 제26장 -’

위와 같이 동양 철학은 이미 오래 전에 지금 인간에게 요구되는 동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었는지 모른다. 최근 들어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의학적 그리고 과학적 영역 등 거의 모든 학문의 영역에서 ‘동물윤리(Animal Ethics/Tierethik)’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사회는 동물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을까? 경제적으로 그리고 유물론적으로 동물을 평가하는 것부터 감정적인 애착 관계 대상으로 동물을 바라보는 극단적인 관점까지 현재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를 보는 시각은 매우 다양하다. 어찌보면 헤르조(Hal Herzog)의 책 제목 “Some we love, some we hate, some we eat”¹⁾이 이러한 상황을 함축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또한 “동물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먹기 위해서가 아닌가요? 그 학생의 질문은 진심이었지만, 인간중심주의적이고 심지어 위(胃)중심주의적인 기독교 사상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 없이 잘 나타낼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²⁾는 한 옥스퍼드 대학생의 질문과 이에 대한 대표적 기독교 동물윤리학자인 린지(Andrew Linzey)의 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국 성공회 사제이자 2006년 옥스퍼드 동물윤리 센터를 설립한 그는 이 도발

1) Hal Herzog, *Some we love, some we hate, some we eat. Why It's So Hard to Think Straight About Animals* (New York: HarperCollins, 2011²⁾. ‘해충을 박멸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해충을 해충으로 인식할 때 가능하다’라는 그의 직설적인 지적은 지극히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2) Andrew Linzey, *Creatures of the Same God. Explorations in Animal Theology*, 장운재 역, 『동물신학의 탐구: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 (대전: 대장간, 2014), 63.

적인 질문 속에 기독교에서 동물을 바라보는 최근의 관점이 투영되었다고 해석하였다.

신학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이해함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지극히 인간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 관점과 다양한 형태로 동물 학대를 일부 정당화시키는 종차별주의(Speciesism)³⁾ 관점일 것이다.⁴⁾ 이러한 관점은 ‘자연은 동물과 식물을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으며, 동물은 인간의 힘에 굴복해야 한다. 왜냐하면 동물은 도덕적으로 배려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사고에서 이미 확인된다.⁵⁾ 이후 최근까지 철학과 윤리학⁶⁾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어거스틴과 토마스 아퀴나스의 동물에 대한 인식이 주를 이루었던 기독교 역시 오랫동안 동물을 윤리적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았다.⁷⁾

3) 많은 학자들은 Richard Ryder, “Experiments on Animals,” in Roslind Godlovitch, Stanley Godlovitch and John Harris, *Animals, Men and Morals. An Enquiry into the Maltreatment of Non-Humans* (London: Grove Press, 1971), 81의 “one day abhor ‘speciesism’ as much as they now detest ‘racism.’”에서 이 용어가 처음으로 학술적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4) Peter Singer, *Animal Liberation*, 김성한 역, 『동물해방』 (고양: 연암서가, 2012), 317-417; 최훈, 『동물을 위한 윤리학: 왜 우리는 동물을 도덕적으로 대해야 하는가?』 (고양: 사월의 책, 2015); Henry Stephens Salt, *Animals’ Rights*, 임경민 역, 『동물의 권리』 (서울: 지에이소프트, 2017), 14-44; 최훈, 『동물 윤리의 대논쟁: 동물을 둘러싼 열 가지 철학 논쟁』 (고양: 사월의 책, 2020).

5) Jean-Pierre Wils, “Das Tier in der Theologie,” in Paul Münch, hrsg., *Tiere und Menschen Geschichte und Aktualität eines prekären Verhältnisses* (Paderborn: Ferdinand Schöningh, 1998), 409-410. 이외에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오리겐과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 등 ‘비이성적인 존재들(동물)이 보다 이성적인 종(種)인 인간을 섬기는 것은 신의 섬리다.’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루터와 칼뱅 역시 고전적인 기독교 사상가의 의견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6) Andrew Linzey, 『동물신학의 탐구: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 62는 철학 분야에서 지난 3000년보다 최근 30년 동안 연구된 문헌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7) Ulrich H. J. Körtner, “Tier,” Gerhard Müller u. a., hrsg., *TRE* 33 (Berlin: Walter de Gruyter, 2002), 531; Peter Singer, 『동물해방』, 324-338.

그러나 현재 동물을 향한 인간의 시선이 상당히 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환경과괴로 멸종 위기를 맞이한 동물, 기업화된 축산·양식 방식 또는 도축, 가죽과 모피를 얻기 위해 동물을 활용하는 산업, 투우, 투견, 로데오 등 오락물의 대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것 그리고 지나친 동물용 항생제 오·남용과 연관된 동물복지, 교육 및 연구 등 과학적 또는 의학적 목적으로 동물을 실험 대상으로 삼거나 동물을 사육하는 문제,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 등 여러 연구 분야에서 동물 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인간의 올바른 태도를 묻고 있다.⁸⁾

그렇다면 신학은 이러한 동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먼저 구약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동물에 대한 첫인상은 첫째, 제의 예물로 바라보거나, 둘째, 섭식이 가능하거나 접촉할 수 있는 정하거나 부정한 대상으로 구분하거나, 셋째, 농경사회에서 인간의 노동을 경감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로, 넷째, 중요한 재산⁹⁾ 목록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본 연구의 주제인 ‘구약 속에서 이러한 동물에 관한 윤리를 확인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분명 최근까지 기독교 및 신학에서 ‘동물윤리’는 낯선 주제였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동물과 연관되어 경제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기독교 신학 역시 자신만의 목소리를 표명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현재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이슈 중 하나인 ‘동물윤리’ 연구를 통해서 지금까지 신학의 주제가 상당 부분 세상과 고립된 연구에 한정되었다는 비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¹⁰⁾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는 좀 더 구체적인 동물에 대한 구약의

8) 이에 대한 최근 논의는 최훈, 『동물 윤리의 대논쟁: 동물을 둘러싼 열 가지 철학 논쟁』을 참고하라.

9) 보통 가축 또는 육축으로 번역되는 ‘미크나(מִקְנָה)’는 소유물 또는 재산(욥 1:10)으로도 번역된다.

10) Niklas Peuckmann, “Tierethik in der Theologie?!. Aktuelle Positionen,

윤리적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동물윤리’에 대한 기독교 신학과 구약의 관점

1. ‘동물윤리’에 대한 기독교 신학

‘동물해방’을 주장하는 대표적 학자인 싱어(Peter Singer)는 전반적으로 ‘유대교나 기독교는 인간의 동물에 절대적 지배권을 소유했기 때문에 동물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우호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¹¹⁾ 실제로 다양한 신학 분야에서 생명윤리, 사회윤리 등 다양한 윤리학의 주제들이 논의되었지만,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간중심적인 배경 속에서 동물윤리는 상당 기간 동안 관심 밖 주제였다. 이러한 신학적 방향은 ‘신학에서 동물을 위한 윤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팅엔 대학교 조직신학자 트릴하스(Wolfgang Trillhaas)¹²⁾와 ‘성경은 동물의 권리는 차치하고, 동물에 대한 일말의 관심도 없다.’는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조직신학자 벨커(Michael Welker)¹³⁾의 주장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과학과 의학 연구 분야에서 동물실험이 진행되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철학의 영역에서 동물이 영혼을 지닌 생명체인지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7세기부터 일부 신학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인간의 책임과 의무, 즉 동물의 생명 보호 및 생명

Herausforderungen und Entwicklungen,” *EvTh* 80 (2020), 140-141의 주장처럼, 동물윤리에 관한 신학 연구를 위해서 서로 다른 학제간 연구와 다양한 신학 전공 내 교류는 필요하다.

11) Peter Singer, 『동물해방』, 319-338.

12) Wolfgang Trillhaas, *Ethik* (Berlin: Walter de Gruyter, 1970³), 22.

13) Michael Welker, *Schöpfung und Wirklichkeit*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95), 102. David L. Clough, *On Animals. Vol. I: Systematic Theology* (London: T & T Clark, 2012), Xii-Xv 역시 신학적 교리에 동물이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존중에 대한 인간의 책임과 의무를 서서히 묻기 시작했다,¹⁴⁾ 이후 동물에 대한 기독교의 신학적 관심은 윤리적 내재적 가치를 인간에게만 한정시키지 않고 동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로 확장시킨 슈바이처(Albert Schweizer)¹⁵⁾에 의해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한다. 비록 그가 여전히 인간 중심적 사고에 머물렀다고 주장하는 일부 학자들도 있지만,¹⁶⁾ 그를 동물 윤리에 실질적인 신학적 관점을 보인 동물윤리의 선구자로 평가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이러한 신학적 관심은 1970-80년대 독일, 영국 그리고 미국 중심으로 동물의 모피 또는 가죽을 입는 퍼포먼스, 채식운동에 영향을 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동물복지와는 무관한 해방신학, 인권운동과 같은 기존체제에 반항하는 일종의 저항 표출의 수단이자 현학적인 자아의식의 표출 통로에 지나지 않았다.¹⁷⁾ 이 시기를 거친 후 1990년대에 비로소 본격적으로 동물을 인간을 위해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 또는 주변적 존재가 아니라, 인간보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번성할 복을 받는 존재로 창조되었으며, 인간과 동일한 위치에 서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바라보게 되었다. 이러한 신학적 관심을 '동물윤리'라는 조직신학과 기독교 윤리학의 범주 하에 설정한 인물이 앞에서 언급한

14) Andreas-Holger Maehle, *Kritik und Verteidigung des Tierversuchs. Die Anfänge der Diskussion im 17. und 18. Jahrhundert* (Stuttgart: F. Steiner Verlag, 1992). 17세기 이후부터 2000년대까지 다양한 학문 분야의 동물윤리의 역사에 대한 개략을 위해서는 Heike Baranzke, Art, "Tierethik," in Marcus Düwell, Christoph Hübenenthal, Micha H. Werner, hrsg., *Handbuch Ethik* (Stuttgart: J. B. Metzler, 2011³⁾), 288-292를 참고하라.

15) Albert Schweitzer, *Ehrfurcht vor den Tieren*, Erich Gräßler hrsg. (München: Verlag C.H.Beck, 2011³⁾), 117-158에서 동물에 관한 개략적인 슈바이처의 신학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16) 예를 들면, Niklas Peuckmann, "Tierethik in der Theologie?!. Aktuelle Positionen, Herausforderungen und Entwicklungen," 136.

17) Janine Eichler und Nadine Tramowsky, "Tierethik/Tiere," (erstellt: Febr, 2021), accessed 10 February 2023 from <https://www.bibelwissenschaft.de/wibilex/>.

린지였다.¹⁸⁾

2. ‘동물윤리’에 대한 구약학의 관점

벼룩, 개미 그리고 나방으로부터, 소, 양 그리고 염소와 같은 가축 그리고 사자와 곰 같은 육식 동물까지 구약에서 약 200 종류의 동물¹⁹⁾이 언급되는 구약은 동물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았을까? 먼저, 구약에서 동물은 중요한 재산이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삶의 여러 영역에서 동물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농경문화와 유목문화는 운송 수단이자, 경작 수단으로 동물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육류 및 유제품, 모피와 양모 등 많은 유익함을 동물로부터 제공받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종교 영역에서는 제물로 봉헌되는 동물 없는 이스라엘 종교는 상상할 수 없다. 이러한 종교적 삶을 위해 종교적 목적으로 동물이 도축되는 것²⁰⁾을 제외하고도 다음의 목적하에 도살(屠殺)은 필수적이었다. 첫째, 야생 동물의 위협으로부터 개인의 재산(가축과 농경지)을 보호하기 위해서, 둘째, 식용을 위해서 동물을 살생했다. 그러나 그 당시 농경을 위해 필요한 노동력과 우유와 같은 유제품을 제공하는 동물을 식용을 위해 도축하는 것은 일부 특권층을 제외하고 (암 6:4-6) 일반 백성의 삶 속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이었다.²¹⁾

18) 이승갑, “과정사상의 관점에서 본 동물권(動物權). 린지의 동물신학과의 대화를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제28집 (2014), 28-32; 이창호, “린지의 동물신학 탐구와 비평적 대화 모색. 몰트란, 마우, 스태하우스를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55(2023), 37-75.

19) Ute Neumann-Gorsolke, “»Der Gerechte kennt das Bedürfnis seines Viehs.« (Spr 12,10a). Ethische Aspekte des Mensch-Tier-Verhältnisses im Alten Testament,” in Martin M. Lintner, hrsg., *Mensch-Tier-Gott. Interdisziplinäre Annäherungen an eine christliche Tierethik*, (Baden Baden: Nomos, 2021), 141-142.

20)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은(사 1:11-13; 렘 7:21-22; 호 4:8; 6:6; 암 5:22-25 등) 잘못된 제의로 인한 불필요한 동물 살상을 단호히 거부한다.

21) Ute Neumann-Gorsolke, “»In eure Hand sind sie gegeben …« (Gen 9,2).

킬(Othmar Keel)²²⁾이 제시하는 다음의 동물에 대한 4가지 관점 역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오늘날 상대방을 모욕주기 위해서 특정 동물(개, 돼지, 원숭이 닭 등)을 빗대어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구약에서는 이와 반대로 40종류의 동물이 인명(人名)으로 사용될 정도로 동물을 친숙한 존재로 바라보았다.²³⁾ 둘째, 동물의 형상이 신적 존재로 숭배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²⁴⁾ 동물 자체를 신적 존재로 숭배하는 고대 근동 문화와 달리 동물 자체를 결코 신적 존재로 바라보지 않았다. 셋째, 인간을 위협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세상을 파괴하는 신화적인 존재, 예를 들면 리위야단, 베헤못, 라함, 타닌 등을 설명할 때 동물과 비교해서 설명하였다(시 74:13-14; 89:10; 사 27:1; 51:9-10; 욥 40:15; 41:1 등).²⁵⁾ 넷째, 무엇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피조물이자(창 1-2장; 시 104편), 인간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는 존재로 동물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약의 관점에서 동물윤리의 개념을 확인할 수 있을까? 먼저, 앞에서 언급한 최근의 조직신학처럼 구약은 동물윤리에 관하여 침묵하고

Tiertötung im Alten Testament,” in Alexis Joachimides, u. a., hrsg., *Opfer – Beute – Hauptgericht. Tiertötungen im interdisziplinären Diskurs*, Human-Animal Studies Vol. 12 (Bielefeld: Transcript Verlag, 2016), 55와 각주 16.

22) Othmar Keel, “Allgegenwärtige Tiere. Einige Weisen ihrer Wahrnehmung in der hebräischen Bibel,” in Bernd Janowski, u. a., hrsg., *Gefährten und Feinde des Menschen. Das Tier in der Lebenswelt des alten Israel*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93), 155-193.

23) 갈렙(개), 라헬(어미 양), 요나(비둘기), 나하스(뱀) 등 동물과 연관된 인명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Martin Noth, *Die israelitischen Personennamen im Rahmen der gemeinemitischen Namensgebung* (Stuttgart: G. Olms, 1928), 229-230과 Silvia Schroer, *Die Tiere in der Bibel: Eine kulturgeschichtliche Reise* (Freiburg: Herder, 2010), 15-16을 참고하라.

24) 예를 들면, 금송아지(출 32:4; 왕상 12:26-28)와 놋뱀(민 21:4-9; 왕하 18:4).

25) 비교, Peter Riede, “Tier. II. Altes Testament und antikes Judentum,” Hans Dieter Betz u. a., hrsg., *RGK² 8* (Tübingen: Mohr Siebeck, 2005), 402-404.

있다는 견해이다. 예를 들면, 벨몬트 대학 종교학 교수 매킨타이어(Mark McEntire)는 “불행히도 「동물신학」은 구약성서에 전혀 낯선 신학인 것 같다.”라고 주장한다.²⁶⁾ 바넨마허(Julia Eva Wannemacher)는 여기에 더 나아가서 구약의 언어 속에서는 결코 동물을 인간과 동등하게 창조된 존재로 보지 않기 때문에, 구약학 연구의 한 분야로 ‘동물윤리’를 논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²⁷⁾ 분명 이사야 박사의 지적처럼,²⁸⁾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현대 윤리학에서 사용되는 추상적인 용어에 상응하는 히브리어 용어, 예를 들면, ‘윤리(Ethik)’라는 용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구약 속 ‘동물윤리’에 관하여 묻는다는 것은 분명 쉽지 않다. 여기에 구약은 윤리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인간의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교양서적이 아니라,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 / Anthropozentrismus)’ 관점에서 YHWH에 관하여 말하고 YHWH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말하는 YHWH ‘신중심주의(Theocentrism / Theozentrismus)’의 경전이라는 것이 구약 속 동물윤리를 연구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은 분명하게 인간보다 먼저 창조되고, 인간보다 먼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동물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창 1:22). 또한 하나님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직접 먹이를 제공하신다(욥 38:41; 시 104:21; 욥 1:20).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창조 질서를 유지할 책임과 의무를 요구하신다. 그 요구에

26) Andrew Linzey, 『동물신학의 탐구: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 120.

27) Julia Eva Wannemacher, “Tier und Religion(en). Theologische Tierethik im Kontext,” *Tierethik* 15 (2017), 104-108. 그녀는 ‘동물윤리’가 신학의 일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간과 동물이 동등하게 창조되어 동등하게 구원받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112).

28) 이사야, “윤리적 책으로 구약 읽기를 위한 한 모색. 여호수아서에 나타나는 헤렘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55(2023), 240과 각주 4에서 언급된 문헌을 참고하라.

동물에 대한 인간의 책임도 포함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구약은 단호히 하나님의 피조물인 동물을 인간의 행복과 목적을 위해 동물을 이용해도 된다는 사고와 함께 현재 동물을 바라보는 하나의 시선인 동물 행복 중심의 감성주의적 정당화나 동물에 초점을 맞춘 연구 역시 거부한다.²⁹⁾

III. 구약 본문 속 ‘동물윤리’

1. 두 창조 이야기 속 ‘동물윤리’

좀 더 구체적으로 구약에서 동물윤리의 흔적을 찾고자 한다면, 많은 학자들처럼 그 시작은 동물과 인간 창조에 관한 서로 다른 두 본문(창 1:1-2:4a와 창 2:4b-22) 연구일 것이다.³⁰⁾ 먼저, 인간과 동물 모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조되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언급하는 첫 번째 창조 이야기(창 1:1-2:4a)이다. 그러나 이 본문 속에서 동물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이해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지금의 언어로 히브리어 단어를 이해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동물과 인간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사용된 ‘다스리다’로 번역되는 동사 ‘רָדָה’이다(창 1:26, 28; 비교 시 8:7-9). 때때로 이 동사를 땅을 정복하고 동물을 다스리라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간 중심의 문명과 여타의 피조물에 대한 인간의 착취를 정당화하는 “*dominium terrae*”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³¹⁾ 그러나 인간이 동물을 “가장 잔인하게 짓밟는 상태”를(비교 율

29) Niklas Peuckmann, “Tierethik in der Theologie?!. Aktuelle Positionen, Herausforderungen und Entwicklungen,” 131-133.

30) Peter Kunzmann, “Die Spannbreite der Tierethik,” *VF* 59 (2014), 62-63.

31) 예를 들면, Bernd Janowski, “Herrschaft über die Tiere. Gen 1,26-28 und die Semantik von *rdh*,” in Bernd Janowski, hrsg., *Die rettende Gerechtigkeit*, Beiträge zur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2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99), 33.

4:13) 표현할 때 'רָדוּ'가 사용된 적도 있지만, 이 동사는 양을 돌보는 목자의 역할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아카드어 'redū'와 비교해서 인간이 동물을 돌보는 친화적인 관계를 묘사할 때도 사용된다(비교 왕상 5:4; 시 110:2).³²⁾ 이러한 이유에서 본 구절에서 언급된 'רָדוּ'는 동물에 대한 인간의 책임이 동반된 다스림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 여기에서 첫 번째 구약 속 '동물윤리'의 개념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동물과 인간은 평화롭게 공존하는 존재라는 사실이다. 이 두 피조물은 서로의 영역에서(하늘, 바다와 물 그리고 땅) 서로 다른 먹거리로 인간에게는 채소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동물에게는 푸른 풀이 주어졌기 때문에(창 1:29-30), 지금처럼 인간에 동물을 희생시킬 수 있는 그 어떠한 이유와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심히 좋은 공존의 상태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핵심이었다. 현재 우리에게 요구하는 인간과 동물의 비폭력적인 공존이 또 다른 '동물윤리'의 핵심임을 첫 번째 창조 이야기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본문에서는 안식일이라는 단어 'שַׁבָּת'가 언급되지 않는 창조 마지막 날 이렛날에 인간과 함께 짐짐승(가축)과 들짐승(야생 동물)³³⁾ 모두(창 1:24-25) 쉬를 얻었다는 것이다(창 2:2).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는 짐짐승과 들짐승 구분 없이 쉬가 제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짐짐승과 들짐승 구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아이홀러(Janine Eichler)와 트로모브스키(Nadine Tramowsky)의 주장처럼

32) Hans Jochen Boecker, "Du sollst dem Ochsen, der da drischt, das Maul nicht verbinden. Überlegungen zur Wertung der Natur im Alten Testament," in Bernd Janowski, u. a., hrsg., *Gefährten und Feinde des Menschen. Das Tier in der Lebenswelt des alten Israel*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93), 81.

33) 일반적으로 구약에서 들짐승(야생 동물)은 '하야 핫샤데(הַיָּהוּא הַחַי)'(창 2:19; 3:1; 출 23:11 등) 또는 '하야 하이라쯔(הַיָּהוּא הַחַי)'(출 23:29)로 짐짐승(가축)은 '베헤마(בְּהֵמָה)'으로 표현된다.

럼,³⁴⁾ 인간에게 유익을 제공하는 집짐승과 피해를 주는 야생 동물의 구분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이 철저히 투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창조 본문에서는 동물 보호의 기준이 인간의 유·무익을 따른 기준이 아니라, 모든 동물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속할 권리와 땅의 소출에서 먹거리를 얻을 권리 그리고 짐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³⁵⁾

두 번째 창조 이야기(창 2:4b-25) 역시 동물이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먹거리로 창조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창 2:16). 그리고 인간과 동물 모두 동일한 재료인 흙으로 창조되었다(창 2:7,19). 이러한 이유에서 두 번째 이야기가 좀 더 동물 친화적이며, 인간과 동물은 동등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³⁶⁾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담이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의 이름을 지었다(창 2:19-20)는 내용 속에서 인간과 동물 사이의 불평등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³⁷⁾ 왜냐하면 이미 알려진 것처럼 구약에서 이름을 짓는 행위는 소속감을 형성하는 데에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계관계를 표현하는 데도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리드케(Gerhard Liedke)³⁸⁾가 말하는 인간과

34) Janine Eichler und Nadine Tramowsky, “Tierethik/Tiere.”

35) Rainer Albertz, *Exodus 19-40*, ZB.AT 2,2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2015), 10-11.

36) 여기에 Marie Louise Henry, *Das Tier im Religiösen Bewusstsein des Alttestamentlichen Menschen*, SGV 220/221 (Tübingen: J. C. B. Mohr, 1958), 14는 두 번째 창조 이야기 본문이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를 말하는 구약의 여러 본문 중 가장 아름다운 본문이라고 주장하였다.

37) Albert de Pury, “Gemeinschaft und Differenz. Aspekte der Mensch-Tier-Beziehung im alten Israel,” in Bernd Janowski, u. a., hrsg., *Gefährten und Feinde des Menschen. Das Tier in der Lebenswelt des alten Israel*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93), 133; Peter Riede, “Tiere im Alten und Neuen Testament - Ein Überblick,” in ders., *Im Spiegel der Tiere. Studien zum Verhältnis von Mensch und Tier im alten Israel*, OBO 187 (Freiburg: Universitätsverlag, 2002), 210-220.

동물의 관계는 공생 및 협력관계³⁹⁾가 분명히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에서 동물윤리의 조그마한 흔적을 찾는다면, 동물의 이름을 짓는 과정 속에서 야생 동물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를 통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야생 동물 역시 이스라엘 백성의 관심의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제사장 문서에 속한 노아의 홍수 이야기 속 ‘동물윤리’

일반적으로 구약학 학자들은 첫 번째 창조 이야기 본문을 소위 ‘제사장 문서’에 속한 본문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노아의 홍수와 연관된 본문(창 6-9장)에서도 상당 부분 제사장 문서에 속한 본문⁴⁰⁾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창조 이야기와 밀접하게 연관된 이들 본문들은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첫째, 이들 모두 함께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공동 운명체이자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둘째, 이전의 평화적인 공존 관계는 노아의 홍수 이전에 이미 틀어졌지만(창 6:11), 인간과 동물 모두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다(창 8:17; 창 9:7). 그러나 인간만이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창 9:1), 인간과 동물 사이에 삶의 공간인 육지

38) Gerhard Liedke, “Tier-Ethik’ - Biblische Perspektiven. Ein Bericht,” *ZEE* 29 (1985), 163-164.

39) Odil Hannes Steck, *Welt und Umwelt. Biblische Konfrontationen*, UB 1006 (Stuttgart: Kohlhammer, 1978), 69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104편에서는 창조주 앞에 인간은 동물과 비교해서 그 어떠한 우위를 확인할 수 없으며, 동일한 삶의 권한을 소유했음을 언급하고 있다.

40) 일부 논란이 되는 본문을 제외하고 창 6:9-22; 7-6-9.11.13-16a.18-22.24; 8:1.2-5(2b 제외).13a.14-19; 9:1-19.28-29 본문이 제사장 문서에 속한다는 Martin Arnoeth, *Durch Adams Fall ist ganz verderbt... Studien zur Entstehung der alttestamentlichen Urgeschichte*, FRLANT 217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7), 43-92의 주장에 많은 학자들은 동의한다.

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필연적이었다. 이와 같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⁴¹⁾ 셋째, 이러한 갈등의 해법으로 인간과 동물 사이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했다. 동물은 인간을 두려워하고⁴²⁾ 무서워해야 했으며, 인간은 동물에 대한 처분권을 부여받는다(창 9:2).⁴³⁾ 넷째, 무엇보다 동물은 인간의 섭식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즉, 인간은 먹거리를 위한 동물 살생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물이 멸절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창 9:8-11), 동물에 대한 무차별적인 살상은 그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했기에 동물의 생명권이 보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⁴⁴⁾

이와 함께 윤리적 관점에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첫째,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들짐승과 짐짐승 모두 기억하셨다는 것이다. 이는 제사장 문서(첫 번째 창조 이야기와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들짐승과 짐짐승 모두의 번영과 안녕

41) Norbert Lohfink, "Macht euch die Erde untertan?," Norbert Lohfink, hrsg., *Studien zum Pentateuch*, SBAB 4 (Stuttgart: Verlag Katholisches Bibelwerk, 1988), 18; Jakob Wöhrle, "dominium terrae. Exegetische und religionsgeschichtliche Überlegungen zum Herrschaftsauftrag in Gen 1,26-28," *ZAW* 121 (2009), 182-183. 이에 덧붙여 Erasmus Gaß, "Alttestamentliche Zugänge zum Menschen, zum Tier und zum Mensch-Tier-Verhältnis," in Jochen Sautermeister, hrsg., *Tierische Organe in menschlichen Körpern. Biomedizinische, kulturwissenschaftliche, theologische und ethische Zugänge zur Xenotransplantation* (Paderborn: mentis, 2018), 131는 인간의 이러한 번성을 '질서 있는 인간의 번성'이 아니라 '죄의 번성'으로 규정하였다.

42) 구약에서 서로 다른 대상(예를 들면,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 사이의 "두려움"은 "우월성"과 "통치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동물에 대한 인간의 우월성과 통치권이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43) Ute Neumann-Gorsolke, "»In eure Hand sind sie gegeben ...« (Gen 9,2). Tiertötung im Alten Testament," 62; Erasmus Gaß, "Alttestamentliche Zugänge zum Menschen, zum Tier und zum Mensch-Tier-Verhältnis," 131-132.

44) 비교, Ute Neumann-Gorsolke, "»Der Gerechte kennt das Bedürfnis seines Viehs.« (Spr 12,10a). Ethische Aspekte des Mensch-Tier-Verhältnisses im Alten Testament," 154-155.

을 전제한다는 것과 인간의 필요 기준으로 들짐승과 짐짐승을 구분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자신의 피조물인 모든 종류의 동물은 생육하고 번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다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유지할 인간의 책임에 야생 동물을 포함한 모든 동물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력, 동물 말살 금지가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이들 제사장 문서에서 동물윤리가 언제 필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창조 직후 인간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삶보다는 홍수 이후 경쟁하는 삶 속에서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동물의 삶의 공간이 경쟁적으로 파괴되는 현 시점에서 동물에 대한 인간의 윤리적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 논의되어야 한다.

3. 오경 본문 속 ‘동물윤리’

1)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암송이지의 목을 꺾어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 사건에 인간을 대신한다는 규범(신 21:1-9)처럼 구약의 몇몇 율법 속에서 동물에 대한 반윤리적 행위를 확인할 수 있다.⁴⁵⁾ 그러나 대부분 동물과 연관된 율법 본문은 이와 같은 일방적인 반윤리적인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구약 율법 본문에서 동물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경우는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분하는 본문이다(레 11; 신 14:2-22 등). 동물을 정함과 부정함이라는 범주 안에서 구분하는 규범은 그 당시 고대 근동 문화와 비교해서 독특한 이스라엘 전통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일상적인 삶과 종교적인 삶의 척도를 제공하는 이 규례에 의하면, 부정한 동물을 제의

45) 그러나 속죄일에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로 봉헌되는 동물의 경우(레 16장)와는 다르다.

예물로 봉헌하거나, 이를 접촉하거나 취식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었다. 이들 규례가 지닌 신학적 중요성은 포로기 후기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주변 민족과 구분된 유대 공동체의 일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종교적 잣대로 활용되었다는 것이다.⁴⁶⁾ 즉, 이 규례가 왕국 멸망의 원인으로 지목된 **부정한** 이방 종교 및 문화와의 철저한 단절을 **정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하나의 신학적 근거였다는 것이다.⁴⁷⁾ 결국 종교적 목적에서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로 구분하는 것이 정한 이스라엘과 부정한 이방 민족을 구분하는 정치적 영역으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⁴⁸⁾

그렇다면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분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구약은 말하고 있지 않다. 그 기준이 동물의 개별적인 특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는지 그리고 그 당시 윤리적, 도덕적 그리고 사회적 기준과 연관되었는지를 구약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기는 어렵다.⁴⁹⁾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에게 해를 끼치느냐 아니면 인간에게 유익함을 제공하느냐는 절대 기준이 아니었다는 것이다.⁵⁰⁾ 이러한 기준은 지극히 인간중심적 그리고 공리적 관점에서 유익한 동물과 무익한

46) Rainer Albertz, *Religionsgeschichte Israels in alttestamentlicher Zeit*, Teil 2, GAT 8,2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2), 423; Reinhard Achenbach, "Zur Systematik der Speisegebote in Leviticus 11 und in Deuteronomium 14," *ZAR* 17 (2011), 160-162.

47) Walter Kornfeld, "Reine und Unreine Tiere im Alten Testament," *Kairos* 7 (1965), 135-136.

48) Yvonne Sophie Thöne, "Das Gleiche und das Andere. Die Tierordnungen der Tora," *Bibel und Kirch* 4 (2016), 211-212.

49) Mary Douglas, "The Forbidden Animals in Leviticus," *JSOT* 59 (1993), 5-6.

50) 예를 들면,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의 규정에 따르면 나귀는 분명 부정한 동물이지만, 나귀는 분명 귀한 동물 중 하나로 왕이 타는 동물이자, 농경 작업 수행에 중요한 동물이자, 발람과 발락 이야기(민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예지력 있는 동물이었다. 아마도 시대적, 종교적 그리고 사회적 배경에 따라 동물이 때로는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교, Mary Douglas, "The Forbidden Animals in Leviticus," 15-23.

동물을 구분하는 현대인들의 시각에 많은 것을 시사한다. 결국, 구약의 기준에 따르면 단순히 인간에게 유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별할 권리나 특정 동물에 대한 선호도와 친밀감 때문에 여타의 다른 동물과 비교해서 특별한 대우를 요구할 권리가 인간에게 부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예물로 봉헌되는 정한 동물은 사회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사실을 말해 준다. 곡식, 기름 또는 빵과 같은 식물성 예물을 봉헌함에 있어서는 신분의 차이나 경제적 차이와 무관하게 동일한 예물이 봉헌되었다. 그러나 동물 제의의 경우 소, 양, 염소 그리고 비둘기까지(레 1:3-10; 5:7.11), 경제적 차이에 따라 다르게 봉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동물 예물의 차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제의의 진정성의 차이를 의미하지 않는다.

2) 야생 동물

다음의 본문처럼 야생 동물의 안녕 역시 중요한 주제였다.⁵¹⁾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신 22:6-7).”

이 본문에서 야생 동물의 식용은 허용되지만 다음 세대의 존속을 보장해야 하는 ‘인도적 동기(humane Motive)’⁵²⁾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51) 비교, Clemens Wustmans, *Tierethik als Ethik des Artenschutzes. Chancen und Grenzen*, Ethik - Grundlagen und Handlungsfelder, Bd. 9 (Stuttgart: Kohlhammer, 2015), 62-68.

얻는 장수하는 복은 십계명 제 5계명, 부모를 공경할 때 얻는 복과 동일하다는 것이다(신 5:16; 출 20:12). 또 다른 본문에서는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들짐승을 위해서도 안식년에 경작 활동을 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출 23:11). 결국, 야생 동물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과부와 고아, 종과 나그네 그리고 가난한 자처럼 보호가 필요한 존재임을 알 수 있다. 구약의 관점에서 야생 동물은 인간에게 주는 유·무익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존엄한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었다.

이외에도 야생 동물과 평화적인 공존이 유평화적인 창조 질서임을 말하고 있는 시편 104편과 이사야 11장 6-9절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욥기 39장에서는 인간(욥)의 보살핌 없이 야생 동물이 생존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직접 보살피기 때문이다. 결국, 하나님 기준에는 야생 동물과 집짐승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으며, 야생 동물을 인간의 뜻대로 활용하거나 착취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적인 구약의 창조 이야기는 인간에게 제한 없이 동물을 착취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이와 반대로 야생 동물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인간과 함께 땅에 충만하고 번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러한 야생 동물에 대한 신학적 그리고 윤리적 평가는 야생 동물의 개체수가 1970년 대비 약 60% 이상 급감한 현 상황 속에서 지금 구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근본적인 동물윤리의 핵심은 인간에게 유용한 동물의 복지에 관심을 보이는 것보다 야생 동물의 생존과 보존을 위한 인간의 책임과 의무임을 알 수 있다.

52) Gerhard von Rad, *Das fünfte Buch Mose. Deuteronomium*, ATD 8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8²), 101.

3) 집짐승

야생 동물에 대한 이와 같은 일부 관심에도 불구하고, 구약은 농경과 유목과 연관된 집짐승 즉, 가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그 관심은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동물에 대한 ‘올바른 돌봄’이다. 한 울타리 안에 인간과 가축이 공간의 뚜렷한 경계 없이 살던 그 당시 이스라엘 거주 문화 속에서 인간과 동물과의 유대감과 친근감도 올바른 돌봄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많은 경제적 유익을 제공했기 때문에 가축에 대한 올바른 돌봄이 강조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왜냐하면 동물 보호는 소유주의 재산 보호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옛세 동안 일하고 이렛날 쉬를 취하는 왕국 시대 가족 중심의 농경문화의 휴식일 전통 속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종과 함께 소와 나귀와 같은 가축에 대한 쉬를 언급한다. 이는 종이나 가축에게 노동의 할당량이 부과 되었기에⁵³⁾ 적절한 쉬를 통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였을 것이다(비교: 집회서 33: 25-33).⁵⁴⁾ 이와 함께 가축도 사회적 약자처럼 사회적으로 보호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각인시킨다(비교 잠 12:10). 그러나 포로기 이전에 이렛날 가축의 쉬를 언급한 본문(출 23:12; 비교 출 34: 21)에서 ‘안식일’을 뜻하는 ‘샤바트’라는 단어가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쉬의 이유가 종교적 이유와는 무관하기 때문이다.⁵⁵⁾

53) Simone Paganini, “Das Tier als Rechtsperson in der hebräischen Bibel,” *TIERethik* 22 (2021), 46는 소는 사람과 동등한 법적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주체로 이미 자신에게 할당된 양의 곡식을 먹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54) Peter Riede, “Der Gerechte kennt die Bedürfnisse seiner Tiere: der Mensch und die Haustiere in der Sicht des Alten Testaments,” in ders., *Im Spiegel der Tiere. Studien zum Verhältnis von Mensch und Tier im alten Israel*, OBO 187 (Freiburg: Universitätsverlag, 2002), 62; Silvia Schroer, “Tierschutz und Tierethik im Alten Testament. Am Beispiel des Esels,” *Amos* 8/3 (2014), 16.

55) Rainer Albertz, *Religionsgeschichte Israels in alttestamentlicher Zeit*, 424.

이와는 달리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십계명 두 본문(출 20:10; 신 5:14)에서는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언급된다. 그리고 이 날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종, 나그네 그리고 집짐승에게 쉼을 제공하는 ‘안식일’⁵⁶⁾로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한다. 결국 안식일에 가족이 쉼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종교적임을 알 수 있다.⁵⁷⁾

그러나 단순히 경제적 이익과 종교적 관점에서만 집짐승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사실은 다음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 것을 명령하는 규범(신 25:4)이다. 오랜 농경문화의 경험을 통해서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는 것이 도중에 곡식을 먹기 위해서 소가 멈추는 것을 막고, 수확량의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임에도 본문은 이를 엄격히 금하고 있다. 이는 그 당시 주변 국가의 문화와 비교해보면 분명히 낮은 것이었다. 결국, 인간을 위한 노동의 도구 또는 경제적 이익만을 생각하지 않고,⁵⁸⁾ 동물 복지에 관심을 가진 이러한 금지조항이 그 당시 주변 국가의 문화와 비교해서 구약만의 동물윤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소, 양, 염소가 태어나면 새끼는 7일 동안은 어미와 함께해야 하며, 같은 날에 죽일 수 없다는 규례(출 22:30b; 레 22:27-28)나 어미 젖에 새끼 염소를 삶는 것을 금하는 규례(출 23:19b; 34:26b; 신 14:21b) 역시 동물윤

56) 왕국 시대 ‘샤바트’는 음력 초하루 ‘월삭’과 함께 언급되어 음력 보름을 의미하는 ‘망월(望月)’을 의미하였으며(왕하 4:23; 사 1:13; 암 8:5; 호 2:11), 포로기 이후에야 비로소 ‘샤바트’는 이스라엘 정체성과 연관되어 지금의 칠일 주기의 ‘안식일’을 의미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광재, “고대 이스라엘 역사 흐름 속 ‘안식일’(=Sabbath) 개념 변화에 대한 신학적 고찰: ‘Sabbath’- 망월, 축제일, 휴일 그리고 안식일,” 『구약논단』 69(2018), 293-326을 참고하라.

57) 비교, Rainer Albertz, *Exodus 19-40*, 64.

58) Jürgen Ebach, “Zwischen Lebenskampf und Utopie. Die Tiere im Alten Testament,” in Traugott Jähnich und Clemens Wustmans, *Tierethik. biblisch-historische Grundlagen - normative Perspektiven - aktuelle Herausforderungen* (Kamen: Hartmut Spenner, 2012), 11.

리의 관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먼저 이러한 규례가 마련되었다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러한 관습이 실질적으로 행해졌다는 반증일 것이다. 그리고 이 규례는 소, 양, 염소와 같은 특정 동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동물에 대한 금지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몇몇 학자들은 이방 전통에 대한 거부감,⁵⁹⁾ 또는 젓먹이는 어미 동물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이방 종교⁶⁰⁾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어미 동물과 새끼 동물을 함께 제의 예물로 봉헌하는 이방제도가 실제 존재했다는 고고학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방 종교와 연관된 종교적인 접근은 잘못되었다. 오히려 어미 젓은 일반적으로 동물의 생명의 근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또 다른 생명의 근원인 새끼를 죽일 수 없다는 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⁶¹⁾ 또는 동물에 대한 인도적인 조치⁶²⁾

59) 예를 들면, Martin Noth, *Das dritte Buch Mose, Leviticus*, ATD 6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5), 148는 가나안 제의와의 연관성을, Arne Eggebrecht, *Schlachtungsbräuche im alten Ägypten und ihre Wiedergabe im Flachbild bis zum Ende des Mittleren Reiches* (München, Ludwig-Maximilians-Universität, 1973), 55-61는 이집트 제의와 연관성을 주장한다.

60) 예를 들면, Richard David Barnett, "The Nimrud Ivories and the Art of the Phoenicians," *Iraq* 2 (1935), 206-207; Elizabeth Douglas Buren, *Symbols of the Gods in Mesopotamian Art*, Analecta Orientalia 23 (Rom: Pontificium institutum biblicum, 1945), 36-39; Othmar Keel, *Das Böcklein in der Milch seiner Mutter und Verwandtes. Im Lichte eines altorientalischen Bildmotivs*, OBO 33 (Freiburg: Universitätsverlag, 1980), 91-136,

61) Erhard S. Gerstenberger, *Leviticus*, OT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96), 331.

62) Jacob Milgrom, *Leviticus 17-22: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ncB 3A (New York: Doubleday, 2000), 184; Idan Breier, "Animals in Biblical and Ancient Near Eastern Law. Tort and Ethical Laws," *JAE* 8 (2018), 174-175. 이러한 이유에서 동물에 대한 올바른 돌봄은 동물을 대하는 '인간의 인간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Jürgen Ebach, "Zwischen Lebenskampf und Utopie. Die Tiere im Alten Testament," 17의 주장에 동의한다. 이와 달리 John E. Hartley, *Leviticus*, WBC 4 (Nashville: Thomas Nelson, 1992), 362는 동물의 감수성을 무시한 채 예물을 봉헌하려는 종교적 열정을 억제하기 위한 '인도적 행위'로 이해하였다.

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합당할 것이다.

동물에 대한 올바른 돌봄과 연관되어 언급되는 또 다른 본문은 소와 나귀에게 한 멩에를 씌워 동시에 밭을 가는 것을 금하는 본문이다(신 22:10). 이에 대한 대표적인 해석은 단순히 소와 나귀와의 관계를 뛰어넘어 사회적 강자(소)와 사회적 약자(나귀), 본토인과 이방인 등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관계를 말하는 본문으로 이해하는 것이다.⁶³⁾ 또 다른 주장은 '포도나무 사이에 다른 씨를 뿌리지 말라.'는 앞 절 9절과 '양털과 무명실을 함께 짠 옷을 입지 말라.'는 이어지는 11절을 함께 읽어 종교적 관점에서 이방 문화와의 혼합에 대한 거부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몸집의 차이가 큰 소와 나귀를 같은 쟁기 앞에서 함께 묶는 행위 자체에 집중한다면, 분명 이러한 행위는 나귀에게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주는 잔인한 행위(="Tierquälerei")⁶⁴⁾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일차적으로 나귀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인도적 그리고 윤리적 조치라는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⁶⁵⁾

4. 지혜 문학 속 '동물윤리'

젠어(Erich Zenger)의 주장처럼,⁶⁶⁾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63) 더 나아가서 현명한 농부는 '소와 노새를 함께 가래질 하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다(집회서 25:5).

64) Günter Stein, "Das Tier in der Bibel: der jüdische Mensch und sein Verhältnis zum Tier," *Judaica* 36 (1980), 23.

65) Walter Pangritz, *Das Tier in der Bibel* (München/Basel: Ernst Reinhardt Verlag, 1963), 85; Andrew Linzey and Dan Cohn-Sherbok, *After Noah: Animals and the Liberation of Theology* (London: Mowbray, 1997), 9-10; Silvia Schroer, "Tierschutz und Tierethik im Alten Testament. Am Beispiel des Esels," 17.

66) Erich Zenger, "Eigenart und Bedeutung der Weisheit Israels," in Erich Zenger u. a.,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 StTh Bd 1.1 (Stuttgart: Kohlhammer, 2006⁶⁾, 329.

문화에서 ‘지혜’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 속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삶의 지식을 의미했다. 또한 이러한 지혜를 아는 ‘지혜자’ 역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자가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서 어려움을 해석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자였다. 지혜 문학 속 ‘의인’ 역시 도덕적으로 완전한 인격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자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지혜 문학 속에서 동물윤리의 흔적을 찾았다면, 이는 동물과 인간 사이 속에서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경험임을 먼저 전제해야 할 것이다.

먼저 지혜자의 눈에 의인은 짐짐승의 ‘네페쉬(נֶפֶשׁ)’를 돌보는 자로 소개된다(잠 12:10). 구약에서 ‘네페쉬’⁶⁷⁾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네페쉬’는 ‘생명’을 의미한다. 이미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동물은 인간과 함께 ‘네페쉬’를 가진 존재였다(창 1:30; 2:7). 그렇다면 동물의 네페쉬를 돌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리데(Peter Riede)의 주장처럼, 네페쉬는 동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⁶⁸⁾ 결국 동물의 네페쉬를 돌보는 의인은 동물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돌보는 자임을 알 수 있다.⁶⁹⁾

“네 양 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 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

67) 때로는 목구멍 또는 인두(咽喉) 등 신체 일부로(창 42:21; 출 23:12; 31:17 등), 때로는 탐욕과 욕망을 상징하거나(잠 13:2; 전 6:9; 겔 16:27 등), 때로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의 생명(출 21:23,30; 민 35:11 등)을 의미하는 ‘נֶפֶשׁ’를 하나의 용어로 번역하거나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נֶפֶ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연구는 Jürgen van Oorschot, “Leben / naefesch (AT),” (erstellt: Nov, 2020), accessed 15 March 2023 from <https://www.bibelwissenschaft.de/wibilex/>을 참고하라.

68) Peter Riede, “Der Gerechte kennt die Bedürfnisse seiner Tiere: der Mensch und die Haustiere in der Sicht des Alten Testaments,” 64; 비교 Jürgen Ebach, “Zwischen Lebenskampf und Utopie. Die Tiere im Alten Testament,” 9-10.

69) 이외에도 지혜자의 눈에 동물은 단순히 생명을 지닌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인간과 마찬가지로 지혜(따오기)와 통찰력(수탉)을 지닌 존재였다(욥 38:36).

은 영원히 있지 못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풀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네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네 집의 음식이 되며 네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잠 27:23-27).”

위 본문 역시 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이로움과 동물 사육의 어려움은 실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혜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분명히 동물을 인간의 일방적인 재물로만 생각하지 말고 올바르게 돌볼 것을 명령한다. 다른 지혜자의 눈에 동물은 인간처럼 흠으로부터 창조되었고, 흠으로 돌아가는 동일한 운명체였다(전 3:19-20). 이는 동물이 결코 인간 소유가 아님을 강조한다. 결국 지혜문학은 동물을 단순히 상품으로 또는 인간의 편의와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도구로 평가하지 않는다. 오히려 동물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올바르게 대하는 자가 의인이라 지혜자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구약의 관점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올바른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 근본적인 동물윤리를 말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IV. 나가는 말

‘땅의 모든 피조물은 우리처럼 느끼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사랑하고, 아픔을 느끼며 그리고 죽음을 맞이한다. 결국 그들 모두 우리와 같이 동일한 가치를 지닌 전능하신 창조주의 작품이다.’⁷⁰⁾

가톨릭의 성자 아시시의 프란치스코(Francesco d’Assisi, 1181-1226)의 피조물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지난날 동물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70) Markus Vogt, “Tierethik Philosophische und theologische Ansätze des gegenwärtigen ‘animal turn’,” *MThZ* 70 (2019) 348-350.

않았던 가톨릭을 서서히 변화시켰던 것처럼, 매일 130여 종의 식물을 포함한 동물이 멸종되고, 야생 동물의 생태 공간의 지속적인 파괴가 진행되는 현 상황 속에서 구약은 우리에게 이미 그 해법을 제시해 주고 있었다. 단지 우리가 이를 찾으려고 시도하지 않았거나 외면했을 뿐이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와 같이 창조 이야기 속 여타의 피조물에 대한 인간 중심의 사고가 산업혁명 이후 생태계 파괴 및 동·식물에 대한 무차별한 착취에 대한 신학적 정당성을 제공했다.’는 대중적 편견 역시 구약 속에 동물윤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는 걸림돌로 작용했음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구약이 말하는 해법은 무엇인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동물에 대한 인간의 의무와 책임을 말하기 이전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인간과 동물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로 특정한 서식지(하늘, 물 그리고 땅)를 할당받아 그곳에서 평화롭게 공존하며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는 마지막 때까지(사 11:6-8) 유효하다.⁷¹⁾ 여기에서 더 나아가 구약은 단순히 인간과 동물의 평화로운 공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에 대한 인간의 올바른 책임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있는 피조물에게 쉼을 허락했기 때문에 인간도 동물에게 쉼을 허락해야 한다. 이를 통해 동물은 인간이 무한정으로 활용할 수 없고, 더 나은 경제적 혜택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은 동물을 올바르게 돌보는 것이 그 당시 사회적 윤리의 관점에서 올바른 행동임을 말하고 있으며, 지혜문학에서는 이를 행하는 자가 ‘의인’

71) 이러한 이유에서 ‘희망하는 과거(=erhoffte(r) Vergangenheit)’와 ‘기억된 미래(=erinnerte(r) Zukunft)’가 연결되었다는 Jürgen Ebach, *Ursprung und Ziel: Erinnernte Zukunft und erhoffte Vergangenheit. Biblische Exegesen, Reflexionen, Geschichten*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6), 78의 주장은 옳은 지적이다.

이요 '지혜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구약이 말하는 동물윤리의 핵심은 인간이 동물과 화해하고 동물을 올바르게 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 창조 질서를 기억하고 이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또한 구약은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가축이나 때로는 인간에게 해를 가하는 야생 동물을 구별하지 않고 쉼과 번성 그리고 생존을 약속한다. 그리고 쾌락의 목적으로 동물을 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한다. 무엇보다 구약은 인간의 쾌락이나 특정한 목적, 예를 들면, 왕의 용맹함이나 왕권을 증명하기 위한 사냥이 보편화된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⁷²⁾와 다르게 불필요한 동물 사냥을 불허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유 없는 자신의 피조물인 동물에 대한 살생을 불허했기 때문이다(창 9:5). 여기에서 스포츠 또는 레저 활동⁷³⁾이라는 미명하에 합법적으로 사냥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무심한 현대인의 삶에 구약이 제시하는 동물에 대한 중요한 윤리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증가하는 육류 소비, 비윤리적으로 과학 및 의학적인 연구 목적으로 동물 사용이 만연한 현대 사회에 구약은 큰 울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72) 무엇보다 고대 근동의 제왕 이데올로기에서 왕이 다양한 무기로 사자, 악어, 들소와 같은 야생 동물을 사냥한다. 이를 통해 왕은 자신의 용맹함과 왕위의 정당성을 보여준다.

73) Hal Herzog, *Some we love, some we hate, some we eat*, 151-155에서 미국 내 전체 야생 조류 중 30%가 하늘에서 추락해 희생당한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 이궁재. “고대 이스라엘 역사 흐름 속 ‘안식일’(=Sabbath) 개념 변화에 대한 신학적 고찰: ‘Sabbath’- 망월, 축제일, 휴일 그리고 안식일.” 『구약논단』 제69집 (2018), 293-326.
- 이사야. “윤리적 책으로 구약 읽기를 위한 한 모색. 여호수아서에 나타나는 헤렘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제55집 (2023), 237-264.
- 이승갑. “과정사상의 관점에서 본 동물권(動物權). 린지의 동물신학과의 대화를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제28집 (2014), 7-44.
- 이창호. “린지의 동물신학 탐구와 비평적 대화 모색. 몰트만, 마우, 스택하우스를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제55집 (2023), 37-75.
- 최훈. 『동물을 위한 윤리학: 왜 우리는 동물을 도덕적으로 대해야 하는가?』. 고양: 사월의 책, 2015.
- _____. 『동물 윤리의 대논쟁: 동물을 둘러싼 열 가지 철학 논쟁』. 고양: 사월의 책, 2020.
- Achenbach, Reinhard. “Zur Systematik der Speisegebote in Leviticus 11 und in Deuteronomium 14.” *ZAR* 17 (2011), 161-209.
- Albertz, Rainer. *Religionsgeschichte Israels in alttestamentlicher Zeit*, Teil 2. GAT 8.2.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2.
- _____. *Exodus 19-40*. ZB.AT 2.2.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2015.
- Arneth, Martin. *Durch Adams Fall ist ganz verderbt... Studien zur Entstehung der alttestamentlichen Urgeschichte*. FRLANT 217.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7.
- Baranzke, Heike. Art. “Tierethik”. in Marcus Düwell, Christoph Hübenenthal, Micha H. Werner, hrsg., *Handbuch Ethik*. Stuttgart: J. B. Metzler, 2011³, 288-292.
- Barnett, Richard David. “The Nimrud Ivories and the Art of the Phoenicians.” *Iraq* 2 (1935), 170-210.
- Boecker, Hans Jochen. “Du sollst dem Ochsen, der da drischt, das Maul nicht verbinden. Überlegungen zur Wertung der Natur im Alten Testament.” in

- Bernd Janowski, u. a., hrsg., *Gefährten und Feinde des Menschen. Das Tier in der Lebenswelt des alten Israel*.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93, 67-84.
- Breier, Idan. “Animals in Biblical and Ancient Near Eastern Law. Tort and Ethical Laws.” *JAE* 8 (2018), 166-181.
- Buren, Elizabeth Douglas. *Symbols of the Gods in Mesopotamian Art*. Analecta Orientalia 23. Rom: Pontificium institutum biblicum, 1945.
- Clough, David L., *On Animals. Vol. I: Systematic Theology*. London: T & T Clark, 2012.
- Douglas, Mary. “The Forbidden Animals in Leviticus.” *JSOT* 59 (1993), 3-23.
- Ebach, Jürgen. *Ursprung und Ziel: Erinnernte Zukunft und erhoffte Vergangenheit. Biblische Exegesen, Reflexionen*, Geschichten,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6.
- _____. “Zwischen Lebenskampf und Utopie. Die Tiere im Alten Testament.” in Traugott Jähnichen und Clemens Wustmans. *Tierethik, biblisch-historische Grundlagen – normative Perspektiven – aktuelle Herausforderungen*. Kamen: Hartmut Spinner, 2012, 9-17.
- Eggebrecht, Arne. *Schlachtungsbräuche im alten Ägypten und ihre Wiedergabe im Flachbild bis zum Ende des Mittleren Reiches*. München, Ludwig-Maximilians-Universität, 1973.
- Eichler, Janine und Tramowsky, Nadine. “Tierethik/Tiere.” (erstellt: Febr, 2021). accessed 10 February 2023 from <https://www.bibelwissenschaft.de/wibilex/>.
- Gaβ, Erasmus. “Alttestamentliche Zugänge zum Menschen, zum Tier und zum Mensch-Tier-Verhältnis.” in Jochen Sautermeister, hrsg., *Tierische Organe in menschlichen Körpern. Biomedizinische, kulturwissenschaftliche, theologische und ethische Zugänge zur Xenotransplantation*. Paderborn: mentis, 2018, 123-139.
- Gerstenberger, Erhard S., *Leviticus*. OT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96.
- Hartley, John E. *Leviticus*. WBC 4. Nashville: Thomas Nelson, 1992.
- Henry, Marie Louise. *Das Tier im Religiösen Bewusstsein des Alttestamentlichen*

- Menschen*. SGV 220/221. Tübingen: J. C. B. Mohr, 1958.
- Herzog, Hal, *Some we love, some we hate, some we eat. Why It's So Hard to Think Straight About Animals*. New York: HarperCollins, 2011².
- Janowski, Bernd, "Herrschaft über die Tiere. Gen 1,26-28 und die Semantik von *rdh*." in Bernd Janowski, hrsg., *Die rettende Gerechtigkeit*, Beiträge zur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2,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99, 33-48.
- Keel, Othmar, "Allgegenwärtige Tiere. Einige Weisen ihrer Wahrnehmung in der hebräischen Bibel," in Bernd Janowski, u. a., hrsg., *Gefährten und Feinde des Menschen. Das Tier in der Lebenswelt des alten Israel*,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93., 155-193.
- _____. *Das Böcklein in der Milch seiner Mutter und Verwandtes. Im Lichte eines altorientalischen Bildmotivs*. OBO 33, Freiburg: Universitätsverlag, 1980.
- Körtner, Ulrich H. J. "Tier." Gerhard Müller u. a., hrsg., *TRE* 33, Berlin: Walter de Gruyter, 2002, 527-534.
- Kornfeld, Walter, "Reine und Unreine Tiere im Alten Testament," *Kairos* 7 (1965), 134-147.
- Kunzmann, Peter, "Die Spannweite der Tierethik." *VF* 59 (2014), 60-67.
- Liedke, Gerhard, "'Tier-Ethik' - Biblische Perspektiven. Ein Bericht," *ZEE* 29 (1985) 160-173.
- Linzey, Andrew, *Creatures of the Same God. Explorations in Animal Theology*. 장윤재 역. 『동물신학의 탐구: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 대전: 대장간, 2014.
- Linzey, Andrew and Cohn-Sherbok, Dan, *After Noah: Animals and the Liberation of Theology*. London: Mowbray, 1997.
- Lohfink, Norbert, "Macht euch die Erde untertan?." Norbert Lohfink, hrsg., *Studien zum Pentateuch*. SBAB 4, Stuttgart: Verlag Katholisches Bibelwerk, 1988, 11-28.
- Maehle, Andreas-Holger, *Kritik und Verteidigung des Tierversuchs. Die Anfänge der Diskussion im 17. und 18. Jahrhundert*. Stuttgart: F. Steiner Verlag, 1992.
- Milgrom, Jacob, *Leviticus 17-22: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 Commentary. AncB 3A. New York: Doubleday, 2000.
- Neumann-Gorsolke, Ute. "»In eure Hand sind sie gegeben ...« (Gen 9,2). Tiertötung im Alten Testament," in Alexis Joachimides, u. a., hrsg.. *Opfer - Beute - Hauptgericht. Tiertötungen im interdisziplinären Diskurs*, Human-Animal Studies Vol. 12, Bielefeld: Transcript Verlag, 2016, 47-67.
- _____. "»Der Gerechte kennt das Bedürfnis seines Viehs.« (Spr 12,10a). Ethische Aspekte des Mensch-Tier-Verhältnisses im Alten Testament." in Martin M. Lintner, hrsg.. *Mensch-Tier-Gott. Interdisziplinäre Annäherungen an eine christliche Tierethik*. Baden Baden: Nomos, 2021, 139-160.
- Noth, Martin. *Die israelitischen Personennamen im Rahmen der gemeinsemitischen Namensgebung*. Stuttgart: G. Olms, 1928.
- _____. *Das dritte Buch Mose, Leviticus*. ATD 6.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5⁵.
- van Oorschot, Jürgen. "Leben / naefesch (AT)." (erstellt: Nov, 2020). accessed 15 March 2023 from <https://www.bibelwissenschaft.de/wibilex/>.
- Paganini, Simone. "Das Tier als Rechtsperson in der hebräischen Bibel." *TIERethik* 22 (2021), 34-62.
- Peuckmann, Niklas. "Tierethik in der Theologie?!. Aktuelle Positionen, Herausforderungen und Entwicklungen." *EvTh* 80 (2020), 129-141.
- Pangritz, Walter. *Das Tier in der Bibel*. München/Basel: Ernst Reinhardt Verlag, 1963.
- de Pury, Albert. "Gemeinschaft und Differenz. Aspekte der Mensch-Tier-Beziehung im alten Israel." in Bernd Janowski, u. a., hrsg.. *Gefährten und Feinde des Menschen. Das Tier in der Lebenswelt des alten Israel*.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93, 112-149.
- von Rad, Gerhard. *Das fünfte Buch Mose. Deuteronomium*. ATD 8.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8².
- Riede, Peter. "Der Gerechte kennt die Bedürfnisse seiner Tiere: der Mensch und die Haustiere in der Sicht des Alten Testaments," in ders. *Im Spiegel der Tiere. Studien zum Verhältnis von Mensch und Tier im alten Israel*. OBO 187. Freiburg: Universitätsverlag, 2002, 57-64.
- _____. "Tiere im Alten und Neuen Testament - Ein Überblick," in ders. *Im*

- Spiegel der Tiere. Studien zum Verhältnis von Mensch und Tier im alten Israel.* OBO 187. Freiburg: Universitätsverlag, 2002, 213-246.
- _____. "Tier. II. Altes Testament und antikes Judentum," Hans Dieter Betz u. a. hrsg., *RGG*⁴ 8, Tübingen: Mohr Siebeck, 2005, 402-404.
- Ryder, Richard. "Experiments on Animals," in Roslind Godlovitch, Stanley Godlovitch and John Harris. *Animals, Men and Morals. An Enquiry into the Maltreatment of Non-Humans.* London: Grove Press, 1971, 41-82.
- Salt, Henry Stephens. *Animals' Rights.* 임경민 역. 『동물의 권리』. 서울: 지에이소프트, 2017.
- Schroer, Silvia. *Die Tiere in der Bibel: Eine kulturgeschichtliche Reise.* Freiburg: Herder, 2010.
- _____. "Tierschutz und Tierethik im Alten Testament. Am Beispiel des Esels." *Amos* 8/3 (2014), 13-19.
- Schweitzer, Albert. *Ehrfurcht vor den Tieren*, Erich Gräßler hrsg., München: Verlag C.H.Beck, 2011².
- Singer, Peter. *Animal Liberation.* 김성한 역. 『동물해방』. 고양: 연암서가, 2012.
- Steck, Odil Hannes. *Welt und Umwelt. Biblische Konfrontationen.* UB 1006. Stuttgart: Kohlhammer, 1978.
- Stein, Günter. "Das Tier in der Bibel: der jüdische Mensch und sein Verhältnis zum Tier." *Judaica* 36 (1980), 14-26, 57-72.
- Thöne, Yvonne Sophie. "Das Gleiche und das Andere. Die Tierordnungen der Tora." *Bibel und Kirch* 4 (2016), 208-213.
- Trillhaas, Wolfgang. *Ethik.* Berlin: Walter de Gruyter, 1970³.
- Vogt, Markus. "Tierethik Philosophische und theologische Ansätze des gegenwärtigen 'animal turn'." *MThZ* 70 (2019) 333-354.
- Wannenmacher, Julia Eva. "Tier und Religion(en). Theologische Tierethik im Kontext." *TIERethik* 15 (2017), 91-115.
- Welker, Michael. *Schöpfung und Wirklichkeit.*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95.
- Wils, Jean-Pierre. "Das Tier in der Theologie." in Paul Münch, hrsg., *Tiere und Menschen Geschichte und Aktualität eines prekären Verhältnisses.* Paderborn: Ferdinand Schöningh, 1998, 407-427.

- Wöhrlé, Jakob, "dominium terrae. Exegetische und religionsgeschichtliche Überlegungen zum Herrschaftsauftrag in Gen 1,26-28." *ZAW* 121 (2009), 171-188.
- Wustmans, Clemens. *Tierethik als Ethik des Artenschutzes. Chancen und Grenzen*, Ethik - Grundlagen und Handlungsfelder, Bd. 9. Stuttgart: Kohlhammer, 2015.
- Zenger, Erich, "Eigenart und Bedeutung der Weisheit Israels." in Erich Zenger u. a.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 StTh Bd 1,1. Stuttgart: Kohlhammer, 2006⁶, 329-334.

논문투고일: 2023년 06월 30일
심사게시일: 2023년 07월 16일
게재확정일: 2023년 08월 01일

• 국 문 초 록 •

지금까지 신학은 동물복지와 동물의 생명에 무관심했을 뿐만 아니라, 생태계 파괴와 동물에 대한 무자비한 착취에 대한 신학적 정당성을 제공했다는 편견과도 싸워야했다. 매일 수십 종의 동물이 멸종되고, 야생 동물을 위한 생태 공간이 지속적으로 파괴되고 있는 현실에서 본 연구는 구약이 말하는 해법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하였다. 그 답은 이미 구약의 여러 본문 속에 제시되었지만, 단지 이를 찾으려고 시도하지 않았을 뿐이다.

본 연구가 말하는 구약의 '동물윤리'의 핵심은 인간과 동물 모두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이다. 이는 마지막 때까지 유효하다. 지혜 문학 속에서 '의인'은 동물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돌보는 자이다. 또한 구약은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가축과 인간에게 해를 가하는 야생 동물을 구별하지 않고 섬과 번성을 약속하며 결코 동물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도구로 보지 않는다. 결국, 구약의 '동물윤리'의 시작은 동물을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인간이 책임과 의무를 다할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주제어: 동물윤리, 구약, 창조 이야기, 노아의 홍수 이야기, 야생 동물, 집짐승, 지혜 문학
